

CRE

I S S U E P A P E R

VOL. **49**

2018/11

오픈 액세스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방향



Contents

05

1.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06

2. 오픈 액세스는 어떻게 진화되어 왔을까?

07

3. 오픈 액세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09

4. 왜 오픈엑세스를 사용해야 하는가?

11

5.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픈 액세스에 관한 상식

13

6. 나는 어떤 형태의 저널을 택할 것인가?

15

7. 어떻게 올바른 오픈 액세스 저널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픈 액세스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방향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 혼자만의 개인적 소유가 아닌 공유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의 주거 공간과 사무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내 소유의 차가 아닌 필요에 따라 차를 빌려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공유 경제 활동을 통하여 서로 간에 효율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학문 세계에서도 연구 데이터가 크게 증가하고 과학의 복잡화로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가운데 서로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연구 성과와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성과물 발표는 연구자들이 쌓아온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평가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 특히 신진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물의 발표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주로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의 구독형 출판과 비교되어 연구 내용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과학 연구를 폭넓게 발전시킨다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 출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오픈 액세스 저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자신의 연구 성과물이 학문 분야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요즘 많은 연구 기관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오픈 액세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오픈 액세스의 개념과 종류, 오픈 액세스 출판이 전통적인 출판 방법에 비하여 갖는 장점들과 활용 현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픈 액세스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점들, 그리고 올바른 오픈 액세스 저널을 식별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오픈 액세스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01 |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연구자들이 수행한 모든 연구의 내용은 다른 연구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공유되어 결과 활용될 수 있고, 공유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발전되어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방법이다. 이제까지 전통 구독형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연구 내용은 독자가 읽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구독료를 지불하고 회원이 되거나 특정 콘텐츠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여야 열람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저널의 구독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학술 연구의 장애물이 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경제적 혜택이 쉽지 않은 국가의 연구 단체들에게는 더욱더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픈 액세스 방법은 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온라인상에서 연구 데이터 및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2002년 2월 14일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중요한 선언(BOAI)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활동으로 오픈 액세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동료 심사자가 이루어진 연구 논문을 금전적인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인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 액세스 저널 두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와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귀중한 산물을 후속 연구와 지식의 발전을 위해 무료로 공개하고, 이에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더해져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모든 과학자, 학자, 교사, 학생 및 호기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배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구독료 장벽을 없앴으로써 연구를 가속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빈부격차 없이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연구 내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공통적인 지적 대화와 지식에 대한 추구 속에서 단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 2018. 10. 21 열람
- <https://www.editage.co.kr/insights/a-young-researchers-guide-to-open-access-publishing> 2018. 10. 20 열람

02 | 오픈 액세스는 어떻게 진화되어 왔을까?

- 1991 : 최초의 사전인쇄(preprint) 서버; arXiv.org
- 2001 :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인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적용
- 2001 : 최초 비영리 OA 학술지 출판사: PLOS
- 2002 : BOAI(부다페스트 OA 이니셔티브) 발표
- 2003 : Lund Univ.에서 오픈 액세스 저널 디렉토리 발간: DOAJ
- 2009 : 모든 공용 출판은 OA로 한다는 NIH의 공용 접근 정책 발표



03 | 오픈 액세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오픈 액세스 방식에는 그린(green)형과 골드(gold)형이 있다.

그린(green) 오픈 액세스

그린 오픈 액세스 모델에서는 저자가 구독 형식의 저널에 출판함과 동시에 논문을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에 보관할 수 있다. 이를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널은 유료이지만 독자는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통해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자가 오픈 액세스 출판에서 출판 비용을 낼 수 없을 때 이 경로를 많이 택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포지터리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다른 곳에서 동료심사 과정을 따로 거쳐 출판 또는 공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모든 구독 저널이 논문의 리포지터리 게재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저널이 셀프 아카이빙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셀프 아카이빙 전에 저널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 좋다.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리포지터리와 독립 리포지터리가 있고, bioRxiv, Nature Precedings, PubMed Central처럼 특정 주제에 한정된 곳과 arXiv, Global Open Access Portal, Zenodo처럼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곳이 있다. OpenDOAR에서 제공하는 리포지터리의 목록에서 원하는 리포지터리를 찾을 수 있다.

리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브 될 수 있는 논문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논문이 동료심사를 받기 전 저자가 가지고 있던 미수정 논문인 출판 전 임시 인쇄본(PrePrint)과 동료심사를 받은 후 그에 대한 피드백 안이 적용되었으나, 저널이 출판용으로 서식을 완성하기 전 버전, 그리고 저널 발행본이나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서식으로 완성된 최종 PDF 버전의 논문 등이 있다.

골드(gold) 오픈 액세스

골드 오픈 액세스 모델에서는 오픈 액세스 저널이 독자에게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논문에 대한 무료 이용을 허용하나, 논문 출판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 APC)은 저자에게 부과한다. 많은 경우에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연구지원 기관 등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나 골드 오픈 액세스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출판비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나 정책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많은 대규모 출판사에서 오픈 액세스 출판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와 같이 순수 오픈 액세스인 저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올바르지 못한 약탈적(predatory) 저널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오픈액세스 저널 디렉터리(DOAJ)와 같은 주요 오픈액세스 저널 디렉터리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적절한 오픈액세스 저널을 찾기 위해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Hybrid) 오픈 액세스

기존의 구독 출판과 오픈 액세스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이다. 즉, 논문 대부분이 유료이지만 무료 콘텐츠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저자가 추가 금액을 지급하면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출판할 수 있는데, 이 추가금을 보통 오픈 액세스 비용이라고 한다.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 저널에는 Taylor Francis사의 iOpenAccess, Wiley 사의 Online Open, Sage사의 Sage Open 등이 대표적이다.

지연형 오픈 액세스

논문이 최초로 출판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료로 개방된다. 논문이 유료로 제공되는 기간을 엠바고(embargo) 기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엠바고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이다.

- <https://www.editage.co.kr/insights/a-young-researchers-guide-to-open-access-publishing>
2018. 10.20 열람

04 | 왜 오픈액세스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림출처 : <https://kib.ki.se/en/publish-analyse/open-access>

연구 내용의 보급 확대

오픈 액세스 덕분에 많은 연구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읽어보고 자신의 연구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술 자료는 저작권으로 얻는 수입보다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많이 알려지고 인용되어 학계에서 인정받는 것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A는 디지털 과학과 학술 자료, 그중에서도 주로 동료심사 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대하여 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웹을 통한 즉각적인 무료 온라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OA 콘텐츠는 모든 온라인 상에서 무료이며 사용자는 저작권이나 라이선스의 제한 없이 논문의 디지털 콘텐츠를 링크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나 저장할 수 있다. 저자의 입장에서든 구독을 해야 하는 저널보다 접근성이 편한 OA 저널 형태로 출판했을 경우에 다른 연구자들의 인용 횟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저자는 OA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설정하여 자신의 OA 콘텐츠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CC BY)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는 오픈 액세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무료의 즉각적인 접근과 모든 원자료에 대한 무제한적인 재사용 및 인용을 장려한다. 이 라이선스 권한으로 저자와 원본이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모든 사람이 어떠한 비용이나 제한 없이 연구 내용 및 자료의 재사용을 허락 받게 된다.

**공공기여 환원(Public Enrichment)**

많은 과학 연구 및 의학 관련 연구는 공공 기금 지원 하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 액세스를 허용함으로써 내가 낸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 효과의 향상

오픈 액세스를 이용하여 학생과 교사들은 전 세계의 가장 최신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갖는다. 특별히 개발도상국이나 연구 저널의 구독이 경제적으로 힘든 연구 기관들에게도 공평한 논문 열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빠른 출판

많은 오픈 액세스 저널이 제공하는 특징 중 하나가 빠른 출판이다. 저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투고에서 출판까지 30~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연구 논문이 승인된 후 출판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연구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다른 연구자에게 뺏긴다거나 시간 지체로 인해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https://www.plos.org/open-access> 2018. 10. 23 열람
- <https://www.editage.co.kr/insights/benefits-of-publishing-your-work-open-access-debunking-myths> 2018. 10.22 열람

05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픈 액세스에 관한 상식

오픈 액세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활용하여야 한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동료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는 오픈 액세스 저널도 있으나, 대부분의 OA 저널은 기존의 구독형 저널과 유사한 동료심사 과정을 거친다. 인덱스 작업을 위하여 저널을 평가할 때 동료심사 내용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임팩트 팩터를 가진 모든 오픈 액세스 저널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보유하며, “오픈 액세스”라는 말은 단지 출판된 자료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기존 구독형 저널보다 질이 떨어지는 저널이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종종 출판될 수 없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오픈 액세스 저널은 해당 분야의 선두 저널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으며 높은 임팩트 팩터(IF)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Thomson Reuters의 2012년 저널 인용 보고서(Journal Citation Reports®)에 의하면 PLOS Biology가 생물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IF: 12.690), PLOS Pathogens는 기생충학 및 바이러스학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한다(IF: 8.136).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의 Nucleic Acids Research는 2005년부터 완전한 오픈 액세스 저널로 변환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높은 임팩트 팩터를 유지하고 있다. BioMed Central에서 출판하는 100편이 넘는 오픈 액세스 저널들 모두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상위 10% 수준에 속하는 저널도 상당 수 있다. PLOS ONE과 같은 저널에서는 참신성과 폭넓은 호응이 부족하더라도 과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모든 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다. 물론 임팩트 팩터가 저널을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오픈 액세스 저널의 성공을 나타내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오픈 액세스 논문은 저작권(Copyright)이 보호되지 않는다?

어떤 연구자들은 오픈 액세스 논문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오픈 액세스는 주로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넘기지 않고 저자 자신이 갖는

다. 경우에 따라서 기존 구독형 저널에 출판한 저자가 자신의 글이나 도표 등을 수업을 위해 재사용하고자 할 때 허락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픈 액세스 저널에서는 원저자를 적절히 인용하기만 하면 모든 내용을 허락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의 논문은 정당하게 인정받고 최대의 널리 보급될 수 있게 된다.

오픈 액세스는 단순히 유행(passing fad)에 불과하다?

어떤 연구자들은 오픈 액세스 저널이 일종의 트렌드이며 기존 출판 방식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의 오픈 액세스에 관한 자료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매달 더 많은 오픈 액세스 저널이 시작되어 2012년 12월에 오픈 액세스 저널 디렉토리(www.doaj.org)에 등록되었던 저널이 98개에서 현재에는 8,602개로 증가하였다. PLOS ONE같이 널리 알려진 오픈 액세스 저널의 경우에는 전례 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하루에 70편이 넘는 저널을 출판하고 2011년에 출판된 저널이 총 14,000편이 넘는다.

PLOS ONE의 성공에 힘입어 그 이후에 새로이 나온 오픈 액세스 저널들로는 Scientific Reports (www.nature.com/srep), BMJ Open (British Medical Journals group, bmjopen.bmj.com), PeerJ (peerj.com), 그리고 eLife (a joint venture of the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the Max Planck Institute, and the Wellcome Trust; www.eelifesciences.org)등이 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같은 기관에서 기금을 받아 연구한 논문은 일반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개인 연구 기관의 내용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출판사와 기관, 그리고 연구지원기금 단체의 주요 관심이 새로운 오픈 액세스 모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픈 액세스는 독자에게만 좋고 저자에게는 좋은 점이 없다?

흔히들 오픈 액세스 저널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이타적인 노력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오픈 액세스가 무료로 연구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독자에게 커다란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구자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배포가 쉽고 가시성(visibility)이 높기 때문에 인용 횟수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수행한 좋은 연구가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인용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커다란 보람이다.

● <https://www.aje.com/en/arc/open-access-myths/> 2018. 10.25 열람

06 나는 어떤 형태의 저널을 택할 것인가?

과거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는 과학자간의 교류와 공동 연구가 학술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인해 연구자들은 더 이상 저널 책자나 도서관에 파묻혀 자료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연구는 소셜 매체 사이트나 블로그, 또는 트위터나 오픈 액세스 저널과 같이 인터넷 접근이 허용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곳에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경제적 제한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접근 저널의 아이디어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논문을 출판할 때가 되면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연구 논문을 OA 저널 방식으로 출판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익숙한 기존의 구독저널 방식으로 출판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다. AJE(American Journal Experts)에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시성(visibility), 비용(cost), 명성(prestige), 그리고 출판 속도(speed)를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가시성(Visibility)

논문을 OA 저널로 출판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독자들이 더 많아지므로 보다 많은 독자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OA 논문의 경우 구독형 접근 논문에 비해 전체 내용 다운로드는 89%가 높고, PDF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42%, 그리고 정기 독자의 경우에는 23%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OA 출판물이 널리 배포되어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나의 연구물 출판 형태에 대한 의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고, 많은 독자가 저널을 보았다고 해도 인용여부와는 다를 수 있으나, 오픈 액세스를 통해 넓은 독자층을 확보함으로써 잠재적 협업연구를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OA 저널의 데이터는 비싼 저널 구독료가 부담되는 일반 대중이나 교육자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비용(Cost)

투고 시점에서는 기존 구독 방식의 저널이나 OA 저널이나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비슷하나, 출판 승인 이후의 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저널에서는 논문의 페이지 당 그리고 도표 당 비용을 청구하나 OA 저널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논문 편당 저렴한 논문 출판 비용을 내며 이 또한 저자 개인 대신 연구 기관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적 형편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 구독료인데, 어떤 학술지에서는 모든 논문의 온라인 접근 비용으로 매우 큰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독료 부담으로 인해 일부 도서관에서는 구독을 포기하기도 하여 독자와 저자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손해가 가는 일이 초래되기도 한다. 실제로 비싼 구독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술 논문을 오픈 액세스 저널로 투고하거나 적절한 구독료를 받는 저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명성(Prestige)

OA 저널에 투고하는 것을 주저하는 연구자들 중에는 해당 OA 저널이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과학과 인문 사회 분야의 저자가 OA 저널로 출판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OA 출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의심이다. 실제로 많은 OA 저널이 신생 저널이고 임팩트 팩터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OA 저널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생물학 분야의 PLOS Biology, BMC Biology, 그리고 PLOS ONE은 IF에서 각각 1위, 4위, 그리고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PLOS Computational Biology, BMC Systems Biology, 그리고 BMC Bioinformatics은 수리계산 생물학 분야에서 각각 1위, 3위 및 4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교수직 임명, 연구비 수주를 위한 계획서 등에 대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직도 “브랜드 명”의 위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출판 속도(Speed)

많은 연구자들이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을 선택할 때 “승인에서부터 출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투고에서부터 첫 번째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당연히 모든 동료심사를 거치는 저널 출판에서는 투고에서부터 승인, 그리고 출판되기 까지 어느 정도의 지연시간이 존재한다. 특별히 연구분야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의 지연된 발표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인 지면으로 출판하는 저널의 경우에는 논문 기사들을 묶어 정리해야 하고, 지면상의 사정으로 출판 가능한 논문들이 다음번으로 미루어 질 수도 있으며, 저널의 실제 인쇄 및 배포에 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OA 저널에서는 보다 신속한 출판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Scopus 인용 색인에 제시된 135개의 저널을 검토한 결과 승인에서부터 출판까지 걸린 시간이 전통 출판 방식의 저널에 비해 현저히 짧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출판 속도가 출판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면 OA 저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

- <https://www.aje.com/en/arc/making-the-choice-open-access-vs-traditional-journals/> 2018. 10.30 열람

07 어떻게 올바른 오픈 액세스 저널을 선택할 수 있을까?

자신의 연구 논문을 오픈 액세스 저널로 출판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OA 저널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악탈적(predatory) 저널 문제는 오픈 액세스 저널에서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악탈적 저널들은 저자들에게 단지 금전적 피해만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악탈적 저널에 출판이 된 후에는 다른 정상적인 저널에서 출판할 수 없고, 올바른 동료심사 과정 없이 부실한 내용의 연구로 인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제공할 수도 있고 동료심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술 저널로 가장하고 있는 악탈적 업체를 피해야 하는데, 겉으로만 보아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본 글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저널 또는 출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 신생 저널인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사항들의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저널에 투고 또는 저널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심하게 잘 살펴보기를 권한다. 오픈 액세스 저널 디렉토리(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에 들어가면 현재 활동 중인 오픈 액세스 저널들을 해당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다. 일단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이 DOAJ에 있다면 안심해도 된다.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스웨덴의 룬드대학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디렉토리로서 무료로 정기간행물의 모든 내용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배포하고, 인쇄할 수 있게 한다. 이 디렉토리에 등록된 OA 저널은 믿을 수 있는 저널이라 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출판사가 갖는 8가지 명백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저널이 출판 비용 대신 투고 비용을 요구하거나, 또는 저자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갖고자 하는 경우**

- 대부분의 오픈 액세스 저널은 저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독자들은 무료로 출판된 저널을 읽어볼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논문이 '출판 가능'으로 승인되었을 때 출판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며, 금액도 웹 사이트에서 명백히 밝혀놓아야 한다. 어떤 정직하지 못한 저널이나 악탈적 저널에서는 논문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투고 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요구하는 비용이 700\$이 넘기도 하고 사전에 언급하지도 않는다.
- 일반적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하에 저자가 저작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저널임을 주장하며 저작권 소유를 내세우는 저널은 아주 주의 깊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 **편집위원회 규모가 아주 작거나 “준비 중”인 경우**

- 저널의 영향력은 자체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훌륭한 연구자가 저널의 운영진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료심사 과정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며 더 우수한 투고를 많이 받게 된다. 반면에 평판이 미약한 저널들은 적절한 자격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섭외하지 못한 채 일을 개시한다.
- 해당 저널이 당신의 전공과 유사하다면 반드시 편집위원의 명단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들이 신뢰할 만한 저널에 우수한 연구 내용을 출판했는지 확인해기를 권장한다.
- 편집위원회나 책임편집자가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아 심사과정이나 승인 과정을 누가 책임지는지 명백하지 않은 저널에는 투고하지 말아야 하며 믿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저널을 시작할 때 편집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이므로, 편집자가 없는 저널의 경우에는 돈을 목적으로 아무 원고나 게재하는 주의해야 하는 저널일 확률이 높다.

✓ **단독 출판사가 너무나 많은 새로운 저널들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경우**

- 부도덕한 출판사는 종종 여러 저자들을 잡기 위하여 다양한 저널 형태로 확장시키기도 한다. 이 때 저널들은 같은 시리즈 이름을(예를 들면, “The New Journal of...”와 같은) 붙인다. 투고를 고려중인 출판사가 수백 개의 새로운 저널을 발행 중이라면 아마도 출판사에서 실제로 각 저널에 적합한 편집자를 찾기 불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편집위원회 준비 중”일 가능성이 많다.

✓ **저널에서 말한 시기에 발행본이 출간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올바른 저널은 스케줄에 맞춰 발행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내용을 모집한다. 예

정된 대로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 **저널 웹 사이트가 조잡한 경우**

- 많은 저널에서는 학계 관련, 바이오테크 회사, 원고서비스 회사 등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저널의 광고가 렌트카 회사나 꽃 배달과 같이 학술 또는 출판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 이는 해당 저널이 학계와 잘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잡하고 오자가 많거나 연락처 정보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면 다른 저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널 제목의 국가 또는 국제적 소속명이 편집위원회 또는 그 해당 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미국(American)’, 또는 ‘영국(British)’이라는 말이 제목에 포함되는데, 저널은 다른 나라에서 출판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저널이다. 보통 ‘미국(American)’, 또는 ‘영국(British)’이 제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대표 급임을 의미한다.
-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편집능력도 갖추지 않고 제목에 ‘국제적(International)’을 붙이는 것 또한 맞지 않는 표현이다. 경우에 따라 실제보다 좀 더 잘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언해주고 싶다.

✓ **제목과 요약(abstracts)부분에 기본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 가끔씩 발견되는 오타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나, 제목상의 오류나 논문 전반적인 오류는 심사자와 편집자가 그 주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 **저널의 내용이 제목 및 언급된 범위와 다른 경우**

- 기계공학 관련 저널에서 소아암의 치료에 관한 논문을 발행했다면 내용에 관한 편집 처리 과정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어느 한 분야의 저널들은 그 분야의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는다. 간학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최소한 저널의 언급된 초점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중 분야(Multidisciplinary)”를 추구하는 저널일지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주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 <https://www.aje.com/en/arc/8-ways-identify-questionable-open-access-journal/>, 2018, 10, 13 열람)